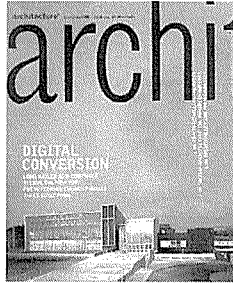


- Architecture
- Architectural Record
- Domus
- a+u
- 建築文化

Architecture

1999년 10월호

이번 호는 스티븐 홀의 조각 같은 건축을 소개하였으며, 근작으로는 Garofalo



Architects의 롱아일랜드 뉴욕장로 교회와 Julie Snow Architects의 South Dakota, Jerstad Center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르네상스 건축의 장식과 규범의 문제를 다룬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를 소개하였다.

■ 스티븐 홀의 조각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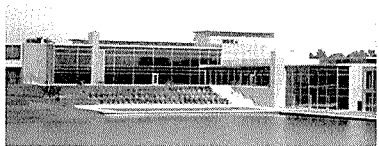
캔자스 시티. Nelson-Atkins 박물관의 증축안으로서 크리스탈로 된 조각과 같은 것을 늘어 놓았다. 광학렌즈에 비유된 일곱 개의 경사진 형태의 유리 박스는 140,000ft² 면적의 지하 갤러리와 그 밖의 시설에 자연광을 제공한다. 스티븐 홀은 기존의 고전 양식의 석조 건물에 형태적 대비를 위하여 이러한 크리스탈과 같은 형태를 고안하였다. 각 유리박스 중심에는 "숨쉬는 T"라고 이름 붙여진 T자형

의 구조체가 지지하고 있다. 구조체는 태양광선을 반사시켜 빛이 갤러리 내부 깊숙히 들어오도록 한다. 공기는 이 구조체 벽으로부터 아래층의 서비스 시설까지 순환하여 자연적으로 공기조화가 되도록 하였다. 다른 반사각을 가진 이중의 유리층은 갤러리로 유입되는 자연광에 영향을 미치며 도시, 박물관 그리고 조각공원으로의 조망을 가능케한다. 두 층의 유리면 사이에 끼인 전자 스크린은 태양광을 선택적으로 차단한다.

■ 근작 소개

▶Garofalo Architects의 롱아일랜드 뉴욕장로교회
LA의 Greg Lynn, 시카고의 Doug Garofalo 그리고 신시내티의 Michael McInturf는 각 도시에서 스크린을 통해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세 탁공장이던 건물을 개조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 유형을 기대하기 힘들었다. 신자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예배를 보러 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등지고 있던 공장 건물의 향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입구가 바깥에 의해서 예배당은 한층 반 높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브리지와 계단이 주차장과 전면 창으로 이루어진 로비를 연결시키고 있다. 공장 건물의 이층에 내부 쉘을 두어 성소를 형성하였는데, 라디오 시티 뮤직홀을 연상시키는 주름진 천장형태는 컴퓨터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예배당 북측의 캐노피는 예배당 외부 출구를 형성하며, 캐노피의 측면 프레임에 맨하탄 스카이라인의 원경이 잡히게 된다.

▶Julie Snow Architects의 South Dakota, Jerstad Center



노인과 장애자에게 주택과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vangelical Lutheran Good Samaritan Society가 근로자 교육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였다. 1996

년 이 재단이 Julie Snow에게 설계의
뢰를 맡겼을 때 이미 고속도로는 대지의
서측부를 가로지른 상태였으며, 남서P.
코너에 자리잡은 기존의 벽돌 사무동도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센터는 인공호수를 가운데 두고 남동쪽
이 열린 L 자형으로 설계되었다.

■ 북 리뷰

기둥, 기초, 엔타블레이처 그리고 장식적
디테일에 고전 건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 건축이론은 장식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기
반하여 이태리 르네상스의 건축 이론을
다룬 책, Alina A. Payne의 The
Architectural Treatise in the Italian
Renaissance: Architectural Inven-
tion, Ornament, and Literaty Cul-
ture를 소개하였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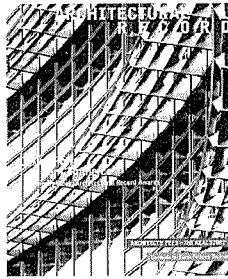
▶Hell's Kitchen South(우범지구)로
알려진 맨하탄 서부가 최근 두 개의 도시
계획에 의해 그 발전 가능성이 제안되었
다. 세계의 유명 건축가가 참여한 현상공
모의 각 계획안 소개 ▶스페인과 포르투
갈의 모더니즘에 대해 Richard
Ingersoll의 글을 실었으며, 아울러 라파
엘 모네오의 스페인 Murcia시청, Cruz
& Ortiz Architects의 세비아 도서관 ,
Alvaro Siza의 Alicante 대학을 자세히
다루었다.

그 밖에 기술적 정보로서 ▶고갈되었던
멕시코 분지의 7개의 호수를 되살리는
프로젝트 ▶나치에 의해 파괴되었던 유
대교회당의 디지털 복원 ▶ 지역고유의
재료와 정확도에 근거하여 전통을 재해
석하는 스위스 건축가들의 작업 등을 소
개하였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0월호

사업에 있어
서 건축의
기여도가 우
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Business
Week/Ar-
chitectural



Record Awards의 수상작들을 소
개하였으며, 근작으로는 소규모 개
인 미술관인 Apennzell Liner 미술
관의 절제된 디자인과 경제적인 환
경설비를 다루었다. 아울러 건물유
형연구로서 위락,상업 복합시설을
자세히 실었다.

■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 Awards

지난해 이 상의 수상자는 "좋은 디자인이
좋은 사업을 낳는다."고 하였다. 이는 사
업의 성공에 있어서 건축이 하는 역할의
중대를 대변해주는 말이기도 하다. 본 상
의 선정 기준은 건축적 완성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여 건축적으
로 도움을 주었는가에 두었으며 심사위
원은 사업가들과 건축가들로 구성되었
다. Alcoa Corporate Center, MIT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ABB Power Generation
Ltd., 뉴저지 집합주택, Republic 유리
공업 등의 수상작들을 건축주와 건축가
의 인터뷰와 함께 소개하였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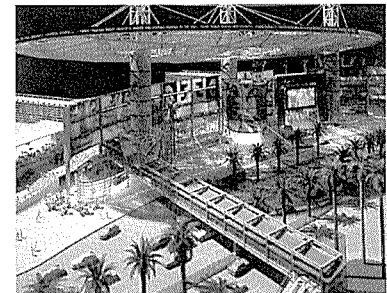
▶ Gigon/Guyer의 스위스 Apennzell
Liner 미술관



Carl Liner 부자의 회화작품을 소장하게
될 이 박물관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유
지가 용이하도록 단순한 기술에 의해 지
어졌다. 클래딩은 내구성이 요구되어졌
으며 기후조절 시스템은 제한된 예산에
의해 가능하면 단순하게 적용되었다. 건
축가는 전시실을 특수한 공간이라기 보
다는 일반적인 공간으로 다루었으며, 평
면을 융통성있게 조직하였다. 비늘처럼
금속 싱글에 의해 싸인 건물의 외관은 빛
에 의해 변화하며, 입구 로비부분의 큰
유리창은 외부에서 봤을 때 건물로부터
외부로 투사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며,
안쪽에서는 내부와 외부가 합쳐지는 지
점이 된다. 갤러리의 크기는 소품 전시에
적당하게 조절되었다.

▶the Miller/Hull Partnership의
Yaquina 안내센터 등 4개의 관광안내
소를 다루었다. 이들은 랜스케이프를
절묘하게 해석하여, 공원의 관광객을 자
연과 하나가 되도록 초대하고 있다. 그
밖에 ▶ 기쇼 구로카와의 암스테르담 고
희미술관 증축동을 자세히 다루었다.

■ 건물 유형 연구- 위락, 상업시설
상업시설 개발업자들은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그리고 테마가
있는 쇼핑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쇼핑센
터에 극장, 레스토랑, 그리고 하이테크
비디오 아케이드가 결합되고 있다. 저가
의 창고형 매장과 집에서 편히 주문하는
전자상거래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위락시설로의 통합은 전략적으로
재고되고 있다. 현 위락 · 상업시설은
▶샌프란시스코 Metron 쇼핑센터▶
Orne+ Associates의 라스베가스
Fashion Show ▶Hodgetts+Fung



산디에고 Fashion Valley Center

Design 배경 Universal Studios Experience ▶Altoon + Porter Architects의 산디에고 Fashion Valley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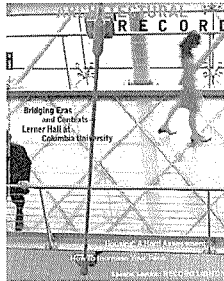
■ 기타

▶Cooper-Hewitt 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린 "The Works of Charles and Ray Eames: A Legacy of Invention" 전시회 ▶건축가의 수입에 관한 기사를 실었으며, ▶컴퓨터기술이 건축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Tech museum of Innovation과 Smith Academic 기술센터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1월호

건물 유형 연구로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도시적 상황에 적합한 초등학교를 다루었다. 최초의



의 원주민 대학인 South Dakota, Sinte Gleska 대학의 캠퍼스 발전 과정과 최근 완성된 기술관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근작으로는 Bernard Tshcumi의 콜럼비아 대학 학생회관과 Alvaro Siza의 Serralves Museum을 자세히 다루었다.

■ 1999, 공공 집합 주택 사업

지난 7년간 연방과 지역의 주택국은 새로운 도시 생활 양식을 공공주택을 재건하는 데에 적용하여 왔다. 그들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 달성하였지만 그 양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였다.

7억 달러예산 계획에 의해 고층건물 대신에 저층으로 이루어진 수천호의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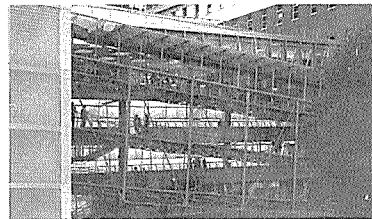
단지가 조성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양한 수입을 가진 커뮤니티가 시카고 Cabrini-Green에 개발 정체상태인 채로 있다. 반면에 민간 개발은 위의 개발과는 상관없이 19층의 보기 흉한 아파트먼트를 세우고 있다.

■ RoTo Architects의 South Dakota, Sinte Gleska 대학

최초의 미 원주민 대학인 이 학교는 1971년 단과대학으로 출발하였다. 90년대 초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대학의 마스터 플랜에서부터 각 건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RoTo Architects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최근에 완성된 기술 센터는 에너지 절감의 측면에서 설비적으로 고려되었다. 태양열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남향을 취하였으며, 흙벽을 설치하여 열의 손실을 줄이도록 하였다. 부족한 예산 덕에 기본적인 설계 이후에는 학생들과 원주민들이 시공을 맡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 근작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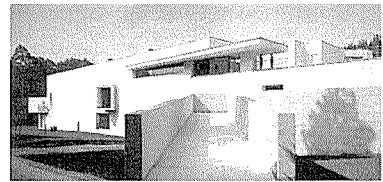
▶ Bernard Tshcumi의 콜럼비아 대학



학생회관

콜럼비아대학의 이사장은 건축가에게 McKim Mead & White의 건축어휘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Bernard Tshcumi는 건물이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는 마티스보다는 뒤샹의 작업방식을 택했다. McKim의 마스터 플랜과 기존의 건물은 그가 다루야 할 기성품인 것이다. 뒤샹이 일상의 물품을 차용하여 그것을 잘라내고 프레임에 넣는 작업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과는 세 건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되었

다. 브로드웨이에 면한 쪽에는 화강암, 벽돌, 인조 라임스톤, 유리 블록등의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캠퍼스에 면한 부분은 벽돌 마감이 주를 이루며, 중간부분에는 전면 유리창과 스틸 프레임의 램프가 지그재그로 가로지르고 있다. 이 램프는 양 끝의 연결하고 있으며, 램프를 따라서 학생 각각의 우편함이 설치되었다.



▶ Alvaro Siza의 Oporto, Serralves Museum

시자의 고향이자, 포르투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Oporto시는 2001년 유럽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이다. 콘서트 홀은 렘콜하스의 안이 당선되었으며, 미술관은 시자에게 설계를 맡겼다. 그러나 시자가 이것을 설계하면서 지역 보존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때문에 그는 두 개의 사이트에 크기가 다른 네 개의 안을 준비하였고 결국 주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땅속에 거의 매입된 형태로 파수원 주변에 짓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다. 길로부터의 출입구는 본 건물로부터 떨어져서 브리지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 건물 유형 연구- 학교

▶Cunningham Group의 미네아폴리스 Interdisrict Downtown School ▶ Jeter, Cook & Jepson Architects의 코네티컷주 Wilbert Snow 초등학교 ▶ Kwan Henmi Architecture and Planning의 샌프란시스코 Jean Parker 초등학교 ▶Ford Farewell Mills and Gatsch, Architects의 뉴저지 Far Hills Country Day School

■ 기타

▶새로운 도로의 소개와 기술적 정보 ▶공원의 야외조명에서부터 호텔, 전시장

Domus

1999년 10월호

에 이르기까지
간접 조명을 효
과적으로 사용
한 사례를 소개
하였다.

실험적인 건
축이 많이 소
개되었다. 거
주자의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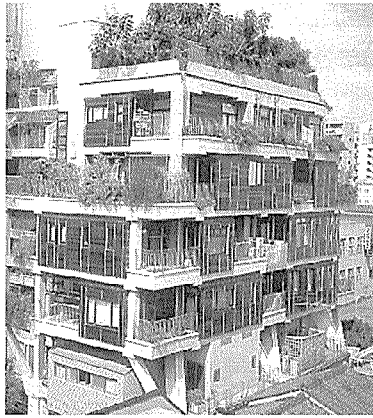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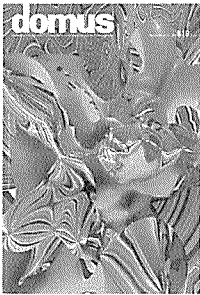
이 설계에 완전히 반영되는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파트먼트와 특수한 프로그램을 잘
풀어낸 Bosch Haslett의 Utrecht
입원 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등을 다
루었으며, 공업디자인으로 레고의
변천과정과 디자인 철학 그리고 브
러쉬의 다양한 변형 디자인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 근작소개

▶ Frank O. Gehry의 Dusseldorf
각각 스테코, 스틸, 타일 마감 된 세 동의
건물은 형태적 독자성을 지닌 채 서있다.
디자인 과정의 처음 단계는 수제작된 모
델을 삼차원으로 스캔하는 것이다.
Catia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스캔된
데이터들은 현지도 작성 및 실제 패널을
제단할 수 있도록 변환된다. 모든 방향에
서 뒤틀리고 구부러진 파사드에는 총
1600개의 개구부가 뚫리게 된다. 다양
한 각도와 곡면에 따라 모든 창틀은 개별
적으로 고려되었다.

▶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
파트먼트

밀도가 높은 오사카시에 지어진 Next21
은 실험적인 건축으로서 21세기의 도시
주거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실험에 융통성이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
었다. 18개 세대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먼트는 각 세대가 구조로부터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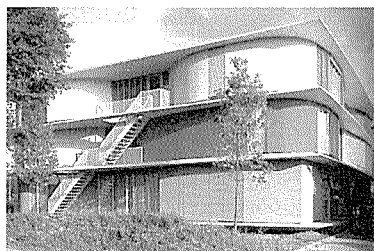


Yositica Utida의 오사카 Next21 아파트먼트

때문에 생활공간의 디자인은 전적으로
거주자에게 맡겨졌다. 벽체는 모듈러 시
스템에 의해 구성되며, 그리드에 따라 부
착 및 제거가 용이하도록 되었다. 거주자
는 내부공간을 임의로 조절하여 과도할
 경우에는 정원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 Charles Correa의 인도 보팔
Vidhan Bhavan 의사당

Corea는 결코 기능주의에 경도된 적이
없다. 그것은 형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표준에 크게 좌우되지 마련이다.
그는 세계주의자이며, 모더니스트인 반
면, 인도의 사회 문화에 의해서도 깊이
영감을 얻는다. 이 국회의사당의 평면도
십자가와 원이라는 신화적 도안을 연상
시키는데 이것은 휴식과 일을 의미하는
상형문자를 가리킨다. 원형의 가장자리
벽 안에 십자형으로 여러실들이 배치되
어 있으며, 돔 지붕을 가진 회의실은 중
심으로부터 치우쳐져 위치하고 있어서
방문객들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 Bosch Haslett의 Utrecht 입원 아동
가정을 위한 주거
완벽한 시나리오에 의해 계획된 Utrecht
대학 캠퍼스 타운 건물중의 하나로서

Ronald McDonald 재단의 후원으로
입원 아동 가족을 위한 주거가 지어졌다.
건물은 다소 독특한 성격을 갖는데 단순
한 슬랩 사이에 무정형의 볼륨이 끼인 구
성을 취하고 있다. 표준과 그 일탈의 유
희는 추상화된 천장과 그 아래의 세분화
된 공간간의 유희로 읽힐 수 있다. 이 주
택은 매우 외향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으
며, 파사드의 개방은 슬랩 모서리부의 노
출에 의해 강조된다. 유틸리티 룸은 오브
제와 같이 처리되어 슬랩 사이에 삽입되
어 있다. 유기적인 각 실의 사이공간 즉,
복도는 십자형으로 놓여져 있으며, 계단
은 반복되어 계단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일층과 이층의 계단을 엇갈리게 놓았
다. 따라서 이층의 두 계단사이를 횡단하
도록 하여 콘코스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의 근작으로 ▶ Oswald Mathias
Ungers의 쾰른 주택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다.

■ 산업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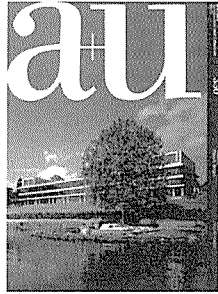
▶ 제조업, 기술을 예술, 문화와 결합하려
는 디자이너 공동의 관심사를 주제로 다
국적 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디자인을 제
공하는 Michelle de Lucci와의 인터뷰
와 함께, 그의 Luigi Einaudi 수력 발전
소의 사인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
젝트는 사람들에게 각 발전소의 건물이
무슨 일을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
는 사인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거대한 외
관의 그래픽 디자인과 내부의 방문객 진
입 안내 표시 디자인의 두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그 밖에 ▶ 컴퓨터 작업의 능률성을 고려
한 간단하고 콤팩트한 워크스테이션 디
자인 ▶ 아르헨티나 디자이너 Emilio
Ambasaz의 제품 디자인 ▶ 다양한 브러
쉬의 활용과 디자인을 다뤘으며, ▶ 65년
의 역사를 갖는 Lego 디자인의 발전과
정을 다루었다.

■ 기타

▶ Norman Foster의 베를린
Reichstag의 건축적 조명 ▶ 베니스 비
엔날레 리뷰가 특집으로 실려있다.

이번 호는 특
집으로 프랑
스의 건축가
패트릭 베르
제(Patrick
Berger)의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베르제는 1947년 파리에서 출생하여 1974년부터 설계활동을 하고있는 작가이다. 그는 건축이 현재와 역사 속에 동시에 서게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의 건축을 만들어가는데 역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탐구의 주제로 삼고 있다. 본 특집에서는 부르고뉴의 사무동 및 오디토리움을 비롯하여 8개의 작품과 자크 뤼캉 등의 에세이 3편이 소개되고 있다.

■ 특집 - 패트릭 베르제의 건축

▶ 베르제의 건축언어와 역사

프랑스의 기호론자로 잘 알려진 롤랑 바르트는 만년인 1978년에 그의 마지막 논문 중에서 프랑스의 젊은 건축가 패트릭 베르제에 의해 일신(一新)된 극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바르트는 언어의 문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베르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학문의 문제는 기술한다는 행위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패트릭 베르제의 언어는 건축 그 자체와 엮여져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스스로의 기술 이외에 어떠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패트릭 베르제는 그의 작품속에 이따금 나타나는 몇 개의 언어 -자연, 드로잉, 건축, 소재- 에 의하여 그의 건축을 생동감 있게 역사의 흐름 속에 각인시켜 가고 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건축으로, 의미를 탐구하는 건축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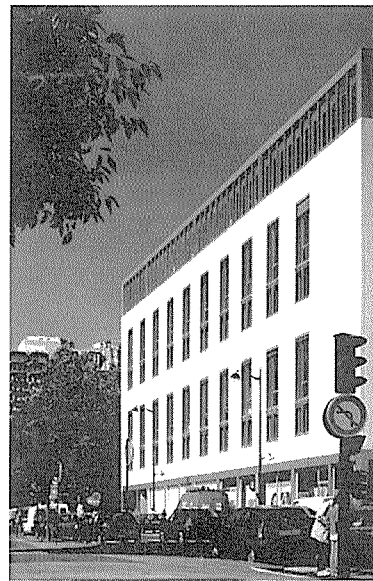
그의 건축은 현재 만들어내는 그의 건축을 역사의 맥락 속에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 자기 자신의 작품활동에 대한 그 자신의 소개의 글을 통해 이러한 그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베르제 건축의 주제 - 역사와 현재

건축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적인 시각을 가지려는 노력이 있겠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표현으로서의 작품을 뛰어넘는 것을 만들어내려 할 때 그것은 가능한 한 비개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베르제는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시대와의 관계 속에서



유럽축구연맹본부



아티스트의 로프트



바스테유 고가교 재이용계획

경험되는 것의 일부분을 반영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시대를 특징짓는 것 중의 하나는 역사적인 것과 현실과의 대결이라는 문제라고 베르제는 지적한다. 그리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 대항 속에서 빠져나가는 방법 즉, '과거와 현재를 만나게 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실현을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들은,

- 현대 기술문화의 변화를 가미한 과거로부터 전해오는 형태.
- 새로운 사회적 관례 속에서의 공간과 현실적인 대응.
- 현재의 경관과 소재 그대로의 형태와 건축기술의 전승.

그는 여기서 이러한 총돌 속에서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를 '오늘날의 건축을 생각하는 가운데, 역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하여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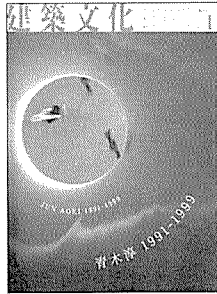
▶ 작품

소개된 작품들로는 부르고뉴 대학 사무 및 오디토리움동, 유럽축구연맹본부, 인터네셔널 미디어블 센터(International Medieval Center), 바스테유 高架橋 재이용계획, 아티스트의 주택과 로프트, CDC·오피스 빌딩, 페르 라쉐즈 묘지, 커뮤니케이션의 기념비 등이며, 에세이로는 자크 뤼캉(Jacque Lucan)의 「언어와 미학적 감각」, 패트릭 베르제 자신의 글 「첫 번째 형상 - 축소된 시각」, 그리고 지난 호에 이미 소개된 전편에 이어 아디 샴미르 지온(Adi Schamir Zion)의 「새로운 모던: 디지털 테크놀로지 새대의 건축」후편이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1999년 11월호

이번 호는 특
집으로 일본
의 건축가 아
오키 준(青
木 淳)의 작
품세계를 소
개하고 있다.



아오키 준은

1956년생으로 동경대 건축학과를 나왔으며, 이소자키 아라타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91년부터 그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의 그의 주요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작품을 만들어 갔던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완공시기가 아닌 작업이 이루어진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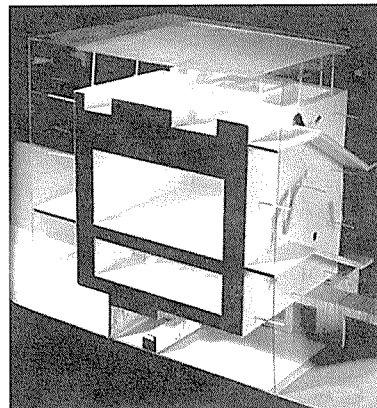
■ 특집 - 아오키 준 1991-1999

▶ 아오키 준의 작품세계 - 개개의 작품을 통한 사유의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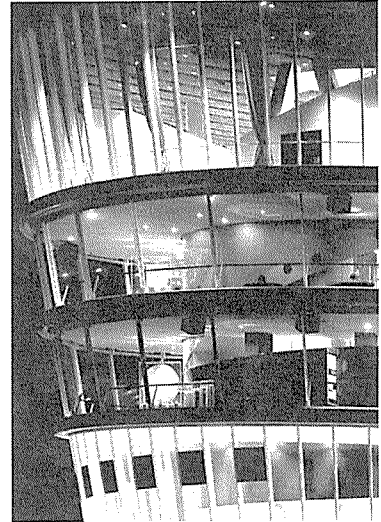
그에게는 그의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주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이론을 세우고 개개의 작품에 그것을 실현해 가는 태도와 같은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다. 오히려 그는 설계를 진행해 가면

서 개개의 과제에 담겨진 문제점들을 파악해가며 그 해결에 매진하는 것을 그의 태도로 간주하고 있다. 당연히 개개의 작품을 초월하는 추상론으로서 사회나 역사, 혹은 이론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또한 그럴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자주 사용한 단어로써 「동선(動線)」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가 그 자신의 작품을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언급한 말이다. 그후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즐겨했으나, 이 말조차도 일상의 설계에서 떠올랐던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어떠한 일반론에 얽매이기보다는 개개 작품이 놓여진 상황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설계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번 특집에서는 그가 작업에 착수했을 때를 기준으로 작품을 소개하면서 개개의 작품을 진행하면서 고려했던 그의 사유들을 그가 되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되돌아보며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의 작품세계를 하나의 이론이 아닌 사유들의 축적들로 소개하고 있



C미술관



후쿠시마 박물관

는 것으로 보여진다.

▶ 작품소개/ 에세이

소개된 작품들은 1991년의 비히모스, 스테이션즈, 야쿠르트 독신자 기숙사 등으로 시작하여, 니이가타 시민문화회관, C미술관, 마미하라교, 후쿠시마 박물관, 유수관, 눈의 마을 미래관 등 주택에서부터 문화시설, 다리, 학교, 상업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 23개의 작품들이며, 이들 작품들을 진행하면서 주목했던 점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이 잡지 등을 통하여 소개된 바가 있으며, 8년간 그는 수 차례 일본 국내 건축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에세이로는 츠카모토 요시하라의 「축구 하이퍼세스(hyper-thesis) 모델」, 하나다 요시아키의 「아오키 준론 서설」이 소개되었다.

회원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

금번 국세청의 전문직종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조치와 관련하여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가 좀 더 저렴한 가격과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카드조회기는 소비자의 1/4수준으로 하고, 가맹점수수료율은 적용률 4~5%보다 낮은 매출금액의 2.5%~3%로 책정키로 하는 등 회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본협회 또는 각 시도건축사회의 안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99. 하반기(2차) 가맹점 확대 조치 주요내용】

1. 업종

서비스업·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116개업종 추가(총 209개 업종)

※ 서비스업: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포함.

2. 지역

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

※ 읍·면지역중 관광지역 등과 같이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포함.

3. 사업규모

개인사업자: 98년도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전문인적용역업종)

법인사업자: 지정업종 전체